

투데이 칼럼

전북 농어촌 인력난의 획기적 해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잘 활용돼야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현장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사철 일손 부족은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 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전북자치도에 등록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2023년 3,460명, 2024년 7,257명에서 올해 1만1646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농촌 인력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본 조례’)이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북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격려의 박수와 함께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임 의원이 밝혔듯이,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사들려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는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장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작금의 농촌문제에 대한 큰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요체다. 도지사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며,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만 한다.

이 지원계획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및 지원 기본 목표, 인력 수급 현황 및 고용 실태, 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특히,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시·군별 인력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관련 종합정

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임승식 의원은 이번 조례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리적인 운영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농어촌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핵심 사항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주거 등 근로 환경, 고용 실태 등을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만약 고용주의 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지사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나아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다.

임승식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전북 농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권익 보호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훌륭한 제도적 장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은 이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라 매년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력난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최선으로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조례가 전북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갈수록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날이 갈수록 폐쇄해지는 전북의 농어촌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조례에 기반하여 모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잘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

부안 동진 감자 인기

전북 부안군의 대표 농산물인 ‘동진감자’가 온라인 시장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국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진감자는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자체 쇼핑몰과 우체국쇼핑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약 2만 박스(3억 2000만 원 상당)를 판매해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보다 판매량은 84%, 매출액으로는 70%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기존 주력 품종인 ‘수미’에 이어 새롭게 선보인 신 품종 ‘금선’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금선 감자는 수확량이 많고 저장성이 높아 최근 기후변화와 병해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쇼핑물의 다양한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첫 TV홈쇼핑 방송에서만 약

7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TV홈쇼핑은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동진감자가 믿을 수 있는 명품 감자라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중요한 기회였다. 홈쇼핑 방송 이후 온라인물 방문자 수와 재구매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등 파급효과가 컸다.

부안군은 온라인 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를 적극 지원했고 농가는 품질 향상과 선별·포장 관리에 힘을 쏟았다. 특히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판매 전략을 공유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농가와 행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로 동진감자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브랜드로 성장했다. 공동 마케팅과 지원책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로컬푸드가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 가구 40% 1인가구

지난해 서울의 1인가구는 약 166만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수 대비 39.9%에 달한다.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인 셈이다.

‘1인가구는 청년이 많다’는 기존 공식도 깨지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과거에는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가구가 늘어났는데, 이제는 30~40대는 물론 60대까지 모든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 데에는 황혼 이혼의 증가도 한몫했다. 이혼이 줄어들고 있지만 60세 이상 황혼이혼은 늘고 있다. 전체 이혼건수 중 황혼이혼 비중은 2000년 3%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29%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평균 이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남성 평균 이혼연령은 51.9세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40.8세와 비교해

10년 이상 상승했다. 여성 평균 이혼연령 역시 같은 기간 37.4세에서 49.4세로 상승했다.

국제결혼 건수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다. 2021년 2951건이던 서울시 국제결혼은 지난 해 4006건으로 늘었다. 서울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9.4%로 나타났다.

서울시 남성은 중국인 아내와 결혼하는 경우가 19.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베트남(19.3%), 일본(11.4%) 순이다.

서울시 여성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서울 여성의 국제결혼 중 38.7%가 미국인과 결혼했다. 중국(14.3%), 캐나다(8.5%)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16년 약 44만명에 달했던 서울시 영유아 수는 지난해 24만명 수준까지 줄었다.

독자재언

노쇼는 사기범죄, 예방만이 최선

노쇼는 말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병원, 식당, 제과점 등에서 전화로 예약을 하고서 아무런 연락없이 오지 않는 경우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군청, 경찰서 등 공공서 직원을 사칭하여 식당에 전화를 해서 단체 예약을 하여 숙이고,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여 돈을 송금받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를 보면 혼자 영업을 하는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다. 노쇼의 피해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경찰은 소상공인 등 업체를 방문하여 노쇼사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커지고 있는 실

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많은 양의 주문 및 선결제 등 예약금을 요구하고 물건의 대리구매등의 요구가 있을사에는 반드시 전화를 하여 한번 더 꼭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같이 예방수칙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기억하고 있으면 노쇼사기로부터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으며, 노쇼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노쇼는 단순한 ‘불참’이 아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고, 준비한 이들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긴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배려의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은 훨씬 따뜻해질 것이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 마음이 모여,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양미 고창경찰서경무계행정관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기자회견하는 젤렌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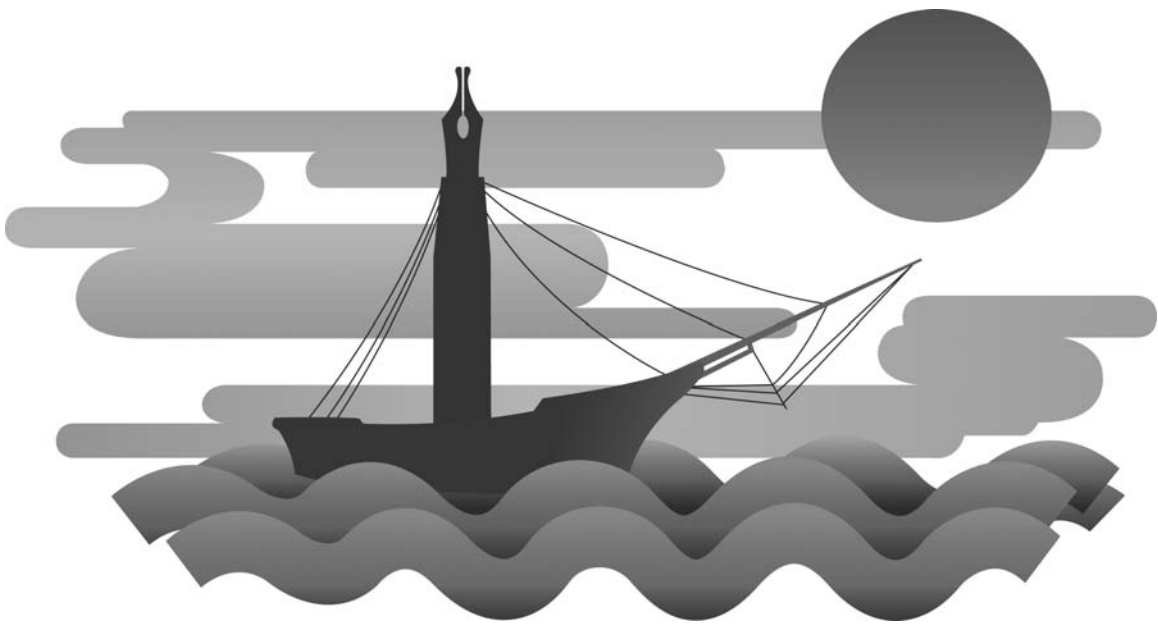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키이우에서 카야 킬리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